

제주 관광의 1번지



중문관광단지는 다양한 테마파크를 비롯해 천제연폭포, 중문색달해변, 제주중문대포 해안주상절리대 등 제주의 색다른 자연이 함께하는 관광명소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들리는 제주 관광의 1번지이다.



중문관광로 | 서귀포시 색달동 2310-1 ~ 서귀포시 중문동 1923-1(약 3.5km)

천제연로 | 서귀포시 색달동 2158-2 ~ 서귀포시 회수동 595-1(약 3.7km)

색달중앙로 | 서귀포시 색달동 2529-1 ~ 서귀포시 색달동 134-3(약 4.8km)

중문로 | 서귀포시 중문동 2114-3 ~ 서귀포시 중문동 산44-2(약 5.2km)

대포중앙로 | 서귀포시 중문동 1884-1 ~ 서귀포시 대포동 2536-2(약 1.4km)

대포연대로 | 서귀포시 대포동 1626 ~ 서귀포시 대포동 1934-3(약 0.9km)

중문관광로/천제연로 | 중문관광단지와 천제연폭포



천제연폭포

중문관광로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문관광단지를 통과하는 길이다. 중문관광로에 들어서면 길가에 늘어선 야자수들이 관광객들을 맞는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중문관광단지는 다양한 테마를 보여주는 테마파크와 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여러 호텔, 각종 회의와 행사가 열리는 제주컨벤션센터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천제연폭포와 베릿네오름, 중문색달해변,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에서는 제주의 색다른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그 중 베릿네오름은 **중문관광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보면 만날 수 있다. 베릿네는 ‘별이 내리는 내’라는 의미로 해석해 성천봉(星川峰)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천제연폭포 계곡의 높은 벼랑을 부르는 말이라고도 한다. 베릿네오름 주변에는 천연난대림과 계곡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천제연로는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갔다는 천제연폭포로 향하는 길이다. 다른 폭포와 달리 세 개의 폭포가 계단처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폭포는 옷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폭포는 알소, 세 번째 폭포는 고래소라고 부른다. 천제연폭포는 백중날 폭포물을 맞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옛날 제주목사도 제주 곳곳을 둘러보는 순력 중에 이곳에 들러 활쏘기 놀이를 즐겼다. 천제연폭포에는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매일같이 천제연폭포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했던 효자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베릿네오름의 산책로를 따라 세 폭포의 모습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명 칠선녀다리라고 불리는 선임교에서는 폭포 주변의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색달중앙로/중문로 | 색달동과 중문동

색달동의 중심이 되는 도로인 **색달중앙로**는 산록남로에서 중문관광단지 교차로까지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중문관광단지와 연결된다. 중문관광단지는 색달동과 중문동의 남쪽 해안가에 구성되어 있다. 천제연폭포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은 색달동에 동쪽 지역은 중문

동에 포함된다. 중문관광단지에서 여러 호텔과 테마파크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색달동이다. 색달동은 과거에 막은곶이라 불렸었다. 예전에 해안가로 왜적이 침입해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색달동 해안가에는 높은 절벽이 있어 왜적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표기도 막을 색(塞)자를 써서 색달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는다는 의미가 마을의 발전을 막는다고 여겨져 풍요로움을 거둔다는 뜻으로 거들 색(穡)자로 바꿨다고 한다.

왜적을 막을 수 있었던 색달동 해안가의 절벽은 갯각주상절리대라고 부른다. 바다의 끄트머리라는 뜻의 이 절벽은 최대 높이가 40m에 달하는 주상절리가 1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주상절리 중간에는 들렁케라는 굴이 있다. 마치 터널처럼 뚫려있는 이 굴에 들어서면 천정에서 주상절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찔한 기분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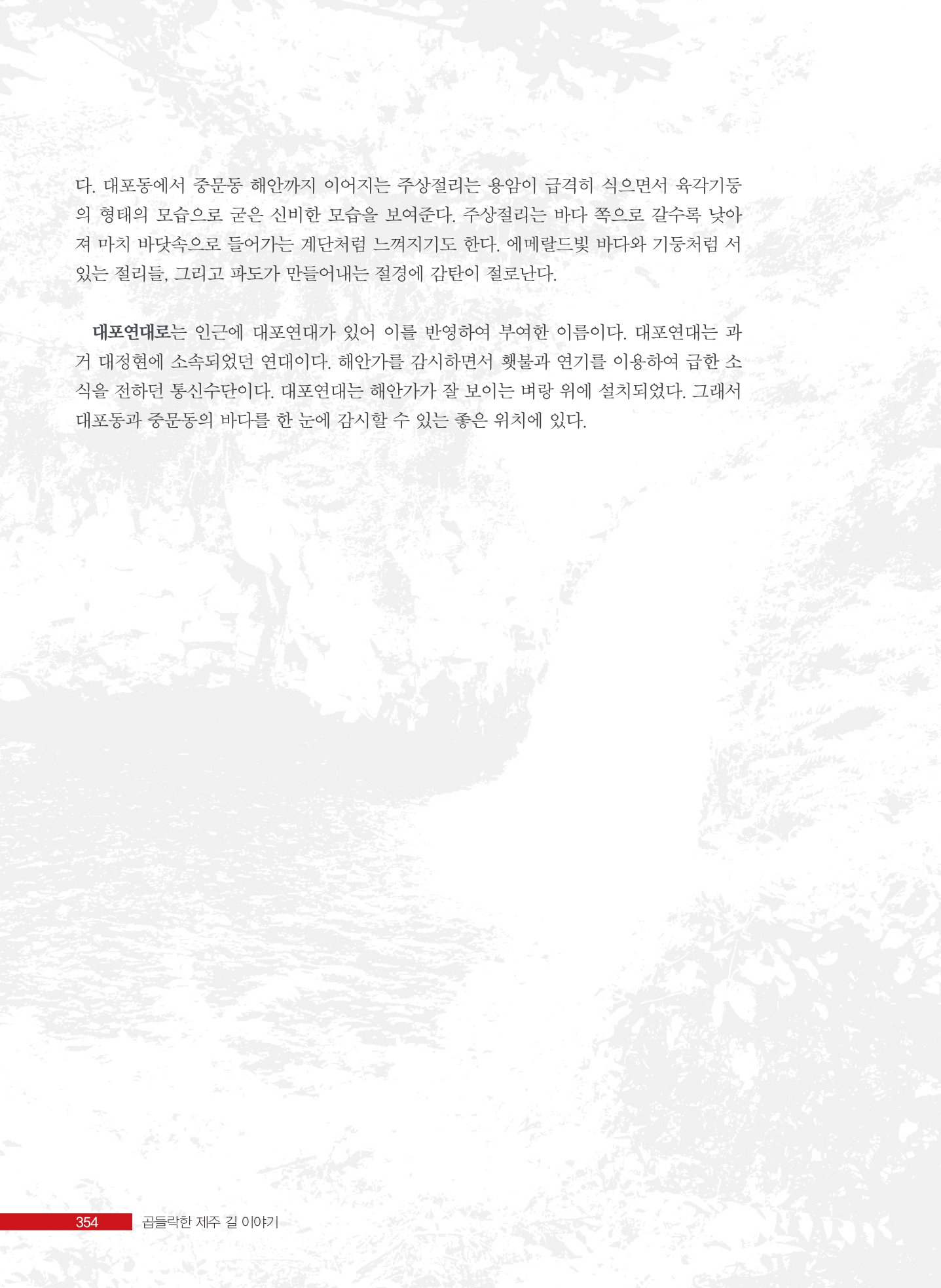
중문동을 가로지르는 **중문로** 역시 산록남로에서 천제연로까지 남북으로 연결된다. 고려시대 때 이곳에는 지방에 출장을 가는 관리를 위해 마련한 숙소인 중문원이 있었던 곳이다. 과거 중문동은 물을 구하기 힘들어 주로 밭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가까이에는 천제연의 물을 이용하려고 해도 중간에 암반이 많아 마을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이재수의 난 때 대정군수에게 파직당한 채구석이 중문에 들어와 살면서 바위를 뚫어 수로를 만들었다. 3년에 걸친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논농사를 짓던 곳에는 관광단지의 주요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대포중앙로/대포연대로 | 주상절리와 대포연대

대포동의 중심도로인 **대포중앙로**는 천제연로에서 이어도로까지 이어지면서 대포동의 변화가를 지난다. 중문동의 동쪽 마을인 대포동(大浦洞)은 중문관광단지의 동쪽 끝을 포함하고 있는 마을이다. 대포동의 명소는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이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인 제주에는 예래동 해안가, 안덕계곡, 천제연폭포, 산방산 등 곳곳에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그 중 주상절리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이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다. 대포동에서 중문동 해안까지 이어지는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육각기둥의 형태의 모습으로 굳은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다. 주상절리는 바다 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마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계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기둥처럼 서 있는 절리들, 그리고 파도가 만들어내는 절경에 감탄이 절로난다.

대포연대로는 인근에 대포연대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부여한 이름이다. 대포연대는 과거 대정현에 소속되었던 연대이다. 해안가를 감시하면서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이다. 대포연대는 해안가가 잘 보이는 벼랑 위에 설치되었다. 그래서 대포동과 중문동의 바다를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